투데이 칼럼

북한의 대대적인 무력시위

정 복 규
논설위원

북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발사로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달 들어선 경제 부문의 성과도 정리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하순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 정책 방향을 정한다고 한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 또,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왔다.

화성 17형 ICBM을 시험 발사했던 자리에 처음 얼굴을 보였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어른스러운 모습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2018년, 김 위원장은 비핵화 진의를 묻는 미국에 '내 아이들이 남은 평생을 핵무기를 짊어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을 했었다.

그랬던 김 위원장이 4년 만에, 그것도 대량 살상무기 관련 행사에 어린 딸을 연거푸 등장시킨 의도에 촉각이 곤두선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는 여자아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다.

첫 등장 때의 어린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도 어른스럽게 손질해 어머니 리설주 여사를 연상시켰다. '사랑하는 자제분'이란 소개도 극존칭으로 바뀌었다.

지휘관급 군인은 상체를 숙이며 인사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17형을 "전략적 힘의 위대한 실체"라며,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재차 밝혔다. 개발 공로자들을 대거 승진시키고 이동식 발사 차량에도 칭호를 수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당시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비핵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제 비핵화는 접고 ICBM 등 미사일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고도 이어졌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2 전략폭격기 8대의 지상 활주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의 우주군 예하 부대가 주한미군에 몇 주 안에 창설될 계획이다.

5년 전, 북한은 화성 15형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선언 5주년을 계기로 올해 7차 핵실험이란 전략적 도발에 나서는 거 아니냔 전망이 많았는데 아직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래도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당시로선 가장 강력한 최대 사거리 1만 3천km의 화성-15형 ICBM을 쏴 올렸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최대 사거리 1만 5천km에, 다탄두 탑재를 실험한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핵무력 완성일'에 관영 매체들은, 화성-15형 대신 17형만 언급하며 주체 병기라고 치켜세웠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거라는 압박도 이어갔다.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안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얼마 전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군축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하는가 주목을 끌었다.

미 국무부가 즉각 부인에 나서 논란 확산을 막았지만 미국 내 일부에선 현실적인 대북 관여를 내세우며 군축 협상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현재로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북미 간 핵군축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반도 정세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다.

군축협상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 왔다. 무엇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화성-15, 17형 같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나서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한국만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되기도 한다.

보유 핵무기의 양과 질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미국과 북한의 핵 군축 협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북한은 이를 활용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어, 현실적 해법으로 군축협상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론은 소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미국판 '담대한 구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냉철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 설

국적 속인 북한 IT인력 고용 문제

최근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들의 일감을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이런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고 보고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일감을 따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북한은 수 천 명의 고숙련 IT 인력을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각지에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단체로 생활하면서 일감을 수주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외국인에게 계정을 빌리고 면접 과정에선 화상 면접 대신 온라인, 전화 면접 등으로 유도해 신분을 속여 왔다.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입국한 뒤 실제로는 IT 인력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현지 당국의 감시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건강, 스포츠, 게임 앱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돼 북한의 대외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앞으로 더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아직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다. 기약 없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껴안아서는 해결책이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북한 IT 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에게 일감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수 있다. 기업들은 철저히 신원 확인에 나서기 바란다.

전주 추억의 책방골목

전주시내 옛 책방골목의 추억을 담은 '동문헌책도서관'이 최근 문을 열었다. 이곳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탄생했다. 도서관은 찬란의 기억, 발견의 기쁨, 추억책방 등 3개의 테마 공간으로 꾸며졌다.

각 공간에는 '추억과 가치를 지닌 책 보물을 찾는 발견의 기쁨'을 주제 한 4,500여권의 책이 자리했다.

눈여겨볼 책장은 '내 인생의 책'이다. 국내 지식인 등이 직접 추천·기증한 책이 전시된 공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창동 영화감독, 축구 선수 박지성, 건축사 유현준, 영화배우 문소리 등 약 30여명의 인생 책이 이곳을 채웠다. 일자별 추천 도서 '책달력', 추억의 애니메이션과 가족 영화를 볼 수 있는 '동문극장' 등 다양한 북 큐레이션이 있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헌책을 활용해 기증과 교환을 자율적으로 하는 '공유서가'와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책방(全州冊房)은 예전에 전주시내 일대에 많이 있었던 서점을 말한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다. 전주시 경원동 '홍지서림 길목'엔 과거 10여개가 넘는 헌책방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4곳의 헌책방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손님들이 있다. 요즘은 별 장르 없이 골고루 찾는 편이다. 철학이나 문학 등 전문분야 서적, 절판된 책, 사전 등이 주로 찾는 서적이다.

대부분의 서점이 불황기에 접어든 것이 현실이다.

'동문헌책도서관'이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문거리의 정체성과 시민의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써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경찰차·소방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위험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찾게 되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출동하여 우리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다.

112, 119출동에 있어 초기 5~10분은 사건 사고 해결에 80%를 담당할만큼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출동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긴급자동차가 달리지 못해 놓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정읍소방서와 정읍경찰서는 합동으로 주간시간과 야간시간으로 나눠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출동로 확보는 단순한 길터주기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 더불어 우리사회를 사랑하는, 운전자들의 '작은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출동로 확보문제로 시간이 지체되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한번만 생각해본다면 '작은 실천'으로 출동로 확보에 기꺼이 협조하게 될 것이다.

출동로 확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른쪽'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가장자리로 양보한다.

넷째,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오른쪽'인 2~3차선으로 양보한다.

'오른쪽'을 기억하고 내 차량을 잠시 양보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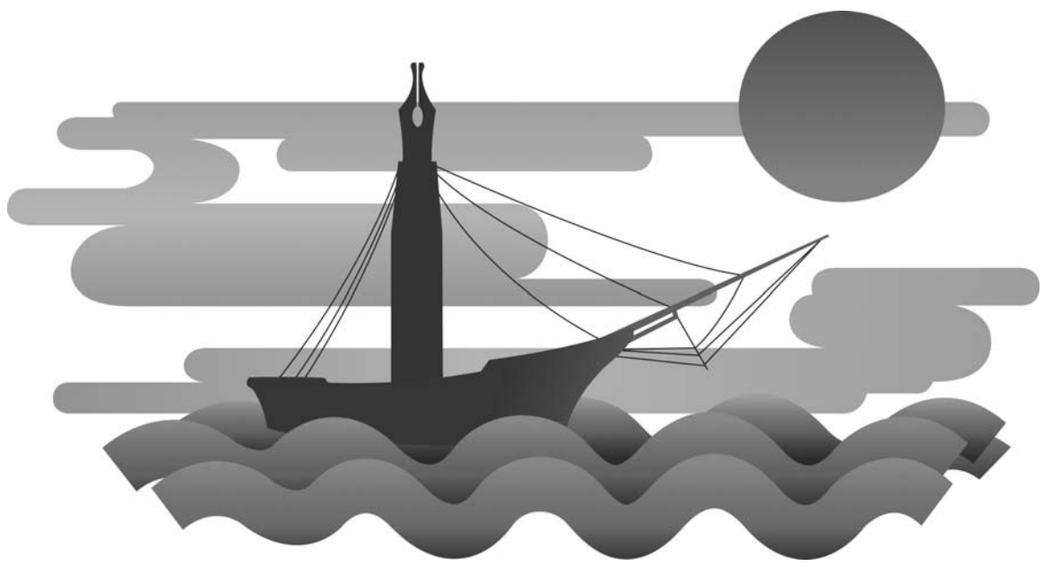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보자!

김경민 정읍경찰서 경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일본,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영국, 이탈리아와 2035년 도입을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자위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3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기자회견 하는 모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